

‘안체제’로 위기탈출… 호남 중진의원 탈당 명분 사라졌다

안철수 대표 과제와 전망

5%대 안팎 지지율 회복 관건
바른정당과 ‘중도연대’ 강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치중할 듯

‘5·9 대선’ 패배 후 위기에서 허덕이던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게 됐다.

신임 안 대표는 결선투표 없이 승부를 마무리 지으며 국민의당 창립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표 경선 출마 선언 때만 해도 선거 패배 및 제보조작 파문으로 인한 책임론 등으로 인해 당 안팎의 여론이 좋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당의 간판으로 누가 어울리느냐는 현실적 질문에 대한 당원들의 응답은 결국 안 대표로 귀결됐다. 다른 후보들이 대안으로 각인되지 못한 때문이다.

◇과제=안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대표직에 복귀했지만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일단 당 지지율 제고가 가장 큰 과제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록한 26.7%의 정당득표율 복원을 공약했지만 현재 지지율은 5%대 안팎이다. 특히 당의 최대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도당하며 10%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어서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 시작을 계



국민의당 안철수·이연주·정동영·천정배 당 대표 후보(왼쪽부터)들이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열심히 뛰라’는 의미의 운동화를 선물 받고 함께 서 있다. /연합뉴스

기로 원내 3당으로서 정국에서의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 또 경선을 전후해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완전하게 ‘안철수계’로 채워지면서 동교동계 원로들과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당이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 성적표가 안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안 대표는 당분간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지지율 회복을 추구하는 ‘자강론’에 방점을 두는 행보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안 대표가 ‘극중(極中)주의’ 노선을 내걸고 전당대회에 뛰어든 만큼 바른정당과 ‘중도연대’를 강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120석의 의석으로 국회 과반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낼 경우 국민의당의 존재감도 자연스레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과의 연대설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중도연대’를 형성한다면 원내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의 여론을 고려하면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한계가 있고 민주당과도 마냥 남남처럼 지내기도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있다. 자칫 텃밭 민심이 더욱 돌아설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호남발 정계개편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불안요소다.

때문에 선불리 바른정당과 손 잡기에 나서기보다는 당장은 물론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야당과도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자강에 치중하다가 정국과 호남 민심의 흐름을 봐가며 기회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거버넌스’ 일정 및 과제

중앙·중외·일곡 등 25곳 평가 시민에 최상의 혜택 방안 모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가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2개월여 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끝에 지난주 광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협업체 구성된만큼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거버넌스에서는 우선 도시공원 25곳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전부 공공조성 ▲민간조성 특례사업 ▲전부 공원 해제 ▲부분 공공조성+부분 해제 ▲부분 공공조성을 통한 민간조성 규모 축소 등으로 분류하는 논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8일이 접수 기한인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수령·마복·송암·봉산)의 제안서를 심의할 심사위원단과 시민평가단 구성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민·관 거버넌스 구성 불가피’ 상호 인식=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보존 및 이용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성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반대 여론 속에 시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들이 심사, 평가 과정에 불참할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정현 광주시장 또한 무리하게 이를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대안 없이 일몰제를 맞을 경우 도시공원 난개발을 방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자칫 공원을 보존·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내부적인 불안감도 존재했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각 실·과의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500억원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은 예산정책관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해제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민간공원 특례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등은 도시계획과가 검토한다.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시재생과 등은 공동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시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공원과 정부 정책이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도시재생과) 등도 각 실과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주식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임택·전진숙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5개 공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돼 협의 내용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의 고층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 구도심 쇠락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공원을 연계해 상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해결 과제 산적한 민·관 거버넌스=오는 30일 첫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의 특성별로 현황사항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보존·조성·개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단계 문제점 제시 및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9월에는 2단계 사업 대상인 중앙, 중외, 일곡 등 6개 공원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2조7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출된 1단계 사업제안서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도 거버넌스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검토 및 의견 협의, 도시공원 존속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2단계 사업(6개소)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선 대책 논의, 중앙·중외·일곡 등 대형 공원 국비 지원 추진사항 설명 및 향후 대책 논의 등도 연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프로필

검찰·안산시장 출신 박주원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안산시장을 지냈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서울지검 특별수사부와 대검 중앙수사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안산시장에 당선됐고, 옛 새누리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내다가 2014년 안산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전북 고창(59) ▲고려대 법학박사 ▲안산시장 ▲국민의당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법조인 출신 유일 현역 박주현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민의당 창당 직후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여성위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됐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 중 유일한 현역의원이다.

▲전주(54) ▲전주여고, 서울대 법대 ▲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사회복지특별위원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안철수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프로젝트플랫폼 시민사회위원장

대변인 지낸 40대 기수 장진영

서울 출신으로 일반 최고위원 후보자로 나선 5명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으며 46세로 가장 젊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신한카드(옛 LG카드)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 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소비자 권리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뤘다.

▲서울(46) ▲성보고 ▲서강대 법학과 ▲사법시험합격(46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45·46대) ▲법무법인 강호 파트너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국민의당 대변인 ▲국민의당 서울동작지역위원장

안철수 측근 20대 이태우

당연직 최고위원인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태우 신임 위원장은 올해 만 29세다. 작년 초부터 안철수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국민의당 창당 후 의원이 당 대표를 맡자 대표 비서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와 가장 가까운 최고위원으로 평가되며 2014년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서울(29) ▲마포고 ▲상명대 시각디자인과 ▲상명대 총학생회장 ▲국민의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늦은 바캉스를 위한 무안출발 해외여행!

하나Pack 클래식 AVPF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7월 27일(목)~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티웨이항공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하나Pack 캐주얼 APPF10_8Y6

세계 3대 화이트 비치
보라카이 아잘리아리조트 4일·5일

총 상품가격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

7월 29일(토)~9월 27일(수) / 날짜별 요일 상이

팬퍼시픽 항공

크리스탈코브 호핑투어(\$60 상당), 세일링보트(\$15 상당), 오일마사지(\$15 상당) 포함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 17년 10월 15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정정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정정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부,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상품의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관광사양서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10층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불편 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시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